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숨은 노력이 필요

발명 사례를 설명하다 보면 지면관계나 혹은 이야기 전개상,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아니! 발명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네... 기발한 힌트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책이나 잡지에 소개된 발명 사례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리고는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면의 깊은 뜻은 저버리고 작은 힌트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발명은 쉬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는 하지만 전체적 발명사에 입각해 볼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오해나 착각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착각에 의해 생각없이 발명에 뛰어들었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통의 글에선, 대부분 발명 아이디어를 얻게된 계기와 그 성공의 순간만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실 발명의 과정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하다.

발명가가 진실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되는 것은 바로 착상에 성공한 그 다음 순간부터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선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과 난관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 머리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이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발명의 순간인 것이다.

이 작업에는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상당한 공작력도 요구된다. 기본적인 과학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 아주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만큼 발명에는 많은 숨은 노력이 따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당신도 혹 일부의 사람들처럼 허황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발명을 하찮은 대여섯개의 힌트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선 발명이 성공한다

자신의 발명품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인기를 끄는 성공작이 되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중의 심리에 편승하여 발명을 하도록 하라.

발명이 성공하려면 현재보다 딱 한발만 앞서야한다. 뒤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앞서는 것도 대중에게 외면 받기 십상이다. 대중은 유행을 따르는 심리도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유전의 법칙’의 발견자 멘델. 그는 유전학에 있어 성전과도 같은 법칙을 정리해냈지만 너무 시대를 앞지른 탓에 살아 생

전에는 어떠한 영예도 얻지 못했다. 그의 유전법칙이 세상에서 인정을 얻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은 뒤에도 무려 30년이 흐른 후였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발견 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드-프리스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얻은 멘델의 팜플렛을 통해 유전의 법칙을 알게됐고 이것을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결국 최초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이르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발견자에 지나지않는 사람이 그 발견시기가 너무 적절하여 오히려 명성을 얻게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발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디오에서 '자동선국'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기능이 있다. 보통의 라디오는 바리콘을 돌려가며 방송을 선택해야하는 반면 자동선국 장치가 붙은 라디오는 단추만 누르면 MBC, KBS가 저절로 나온다. 지금은 이런 장치가 있는 라디오가 많이 나오며 대부분 고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발명품은 십년 전에 발명된 것이다. 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요즘은 라디오의 소형화 추세에 발 맞추어 빛을 보게된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현실을 파악하라.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꼬집어 내보라. 만약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과 경험의 결실

발명은 지능과 경험이 만들고, 지능과 경험은 훈련이 만든다고 한다. 단지 의욕만 지닌 사람은 발명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물리나 화학의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힘까지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기계나 전기등 공학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실제 물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작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공작력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 원인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나 우리의 인식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탓이 큰것 같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어느 정도 갖고 놀고나면 대부분 이를 분해하려하는 습성을 가진다. 이는 본능에 가까운 행위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 장난감의 원리나 구조등을 알게모르게 익히게 된다. 즉 하나의 중요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부모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장난감을 뜯어내는 아이를 보면 마구 꾸짖고 만다.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한다. 결국 아이에게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뺏아버리는 셈이된다.

이에반해 구미의 부모들은 장난감 분해에 오히려 적극적이다. 아이와 같이 장난감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아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으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바로 이때문에 구미인에 비해 우리가 기계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지능과 경험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릴때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대한 기회를 많이 마련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발명가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

질 보다는 양

‘서툰 포수도 여러번 쏘면 적중한다’

이말은 ‘소발에 쥐잡기’식의 우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는 오히려 여러번 쏘는 훈련을 하는 중에 명포수가 될 수 있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자꾸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아이디어의 양을 쌓아가다보면 저절로 발명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많은 발명가들은 모두 대단한 수집광이었으며, 또한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에디

순만 하더라도, 발명을 위해 엄청난 재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가 전구를 발명했을 때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는 전구의 선으로 사용할 적합한 재료를 찾기위해 금속의 선은 6천종, 동물의 털은 2천종, 식물의 섬유도 2천종 까지 모아서 실험했다 한다. 실로 방대한 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식물 품종개량의 권위자인 베어뱅크도 엄청난 실험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큰 딸기를 배합하기 위해 무려 80만 5천종에 달하는 딸기를 교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식물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게된 것이다.

“어이구 미련하긴! 80만 5천종의 딸기를 일일이 교배하다니! 적당히 표본을 만들어 재

배할 것이지”

물론 이런 의심을 품는 것도 가능하다.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필요없는 실험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병산의 일각만 보고 물속에 숨어있는 그 큰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각이다.

100그램의 은을 채취하기 위해 4톤의 광석을 분석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발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산과 같은 착상의 양을 쌓아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王>

안

사무실 이전

내

◎ YOUNG INTERNATIONAL

◎ 金永吉 合同國際特許法律事務所

住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대흥빌딩 4층 402호

電話 : (02) 553-1986/ 1987

FAX : 555-0492

553-4170/ 4171

556-2620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辨護士 金吉燦

(상표·의장)

辨理士 元惠中

(상표·의장)

辨理士 金明燮

(기계·토건)

辨理士 任昌顯

(화학·농약)

辨理士 羅基相

(전자·전기)

辨理士 金永吉